'아동 친화도시 상위단계인증'

군산시, 유니세프 인정… 선진행정 구현 성과

군산시는 유니세프가 인정하는 '아동 친화도시 상위단계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로,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충분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아동친화적 환경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번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은 ▲아동친화적 법체계 ▲아동의 참여체계 ▲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권리실태조사 및 아동영향평가 ▲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등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10가지 구성요소에 대해 신규인증 이후 4년 간의 변화와 이행실적을 평가해 결정됐으며 인증기간은 오는 2025년 6월까지다.

시는 최초인증 이후 어린이 놀이터 74개소에 대한 환경진단을 실시하고 아동의 의견이 반영된 놀이터 개선사업을 추진했으며, 국내 최초로 아동권리광장인 맘껏광장을 조성하고 민주시민광장, 생생직업체험 및 동아리 활동의 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썼다.

또한, 전국 최초로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질병 및 상해보험을 가입해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 할 수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하는 등 다양한 선진행정을 펼친 점을 인정 받았다.

이로써 시는 앞으로 4년간(2022년~2025년) 아동 친화도시 240개 사업 중 15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며, 매년 아동 친화도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사항을 평가해 아동·청소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 청소년이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을 펴, 지속가능한 아동 친화도시 선진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아동친화도시 익산, 아동권리 실현

익산시, 인증 선포식 열어

익산시는 13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열었다.

익산시가 아동친화도시로의 입지를 강화한다.

익산시는 13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선포식을 열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권리를 실현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다.

시는 지난 6월 17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놀이와 여가, 참여와 시민권, 안전·보호, 보건·사회서비스, 교육·가정생활환경 등 6대 영역별 20개 전략사업을 전개한다.

시는 올해 1497억원(전체 예산대비 11.3%) 예산을 투입해 정책토론회와 아동학대 대응, 다문화가족 지원, 공룡테마공원 놀이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아동과 여성 친화 정책을 통해 출산율 증가와 인구 유입 등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의회, 제239회 임시회 개회

군산시의회(의장 정길수)가 13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제239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13일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및 군산시 어린이공원 주민참여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 배형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70년대부터 급격한 도시의 팽창과 토지가격의 폭등, 건축물 내지는 주택의 일관성과 효율성이라는 개발방식의 일환으로 옥상이 많아져 옥상을 휴식 및 문화공간, 도시농업의 농토역할, 사건·사고의 대피장소 등 다변화·다각화·다용도·다시 쓰는 중요한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산시의 경우 반려동물 사육, 폐화분 보관장소, 폐건축자재를 포함한 쓰레기 공간 등 관리와 안전성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며 군산시도 공연 및 전시공간 등 다양성에 근거한 옥상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정책적인 대안은 물론 군산시만의 고유한 옥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실태파악 및 시민·군산시·전문가를 포함하는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중신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은 2010년 10월에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받아 어린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아동청소년과는 물론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권리광장(일명 어린이 맘껏광장), 어린이교통공원, 새만금어린이랜드 뿐만 아니라 어린이소공원 79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산시의회는 지난 1년의 수고와 노력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고 연구하고 발로 뛰며 지역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은 물론 군산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시는 최근 이상기후와 잦은 강우로 인해 수목의 병해충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병해충 발생 시기에 맞춰 지상방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군산시, 산림병해충 집중방제

미국흰불나방 등 발생 시기 맞춰 지상방제 실시

군산시는 최근 이상기후와 잦은 강우로 인해 수목의 병해충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병해충 발생 시기에 맞춰 지상방제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돌발해충인 미국흰불나방은 벚나무, 버즘나무 등 대부분의 활엽수에 발생하며 어린 유충이 실을 토해 막을 형성하고 잎을 먹어치우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수목은 나뭇잎의 잎맥만 앙상하게 남게 된다.

시는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유충이 발생하는 오는 8월 2화기가 도래하기 전 생활권 수목병해충 방제단 2개조를 편성해 가로수, 공원, 주요관광지 등에 방제작업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나대지가 많아 관리가 어려운 산업단지 일원은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단가계약을 통해 병해충 발생 시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방제한다.

시 관계자는 "산림병해충의 조기예찰과 적기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해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고병만기자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 온라인 과학 전문가 특강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원장 박경세)은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최근 실시간 온라인 과학 전문가 특강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는다.

올해 첫번째로 실시된 "실시간 온라인 과학전문가 특강"에는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을 온라인으로 초청하여 진행하였다. 초청연사인 이정모 관장은 2011년 서대문자연사 박물관 관장을 시작으로 서울시립과학관을 거쳐 2020년부터 국립과천과학관 관장을 맡게 되었다.

과학관의 새로운 모델을 구현하여 과학의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고, 2018년 국가생명자원 수집발굴확보정보화상, 2019년 과학기술훈장 진보장 등 많은 상을 수상했으며, 현재에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정모 관장은 군산대학교 과학영재들에게 "인공지능과 인간의 미래"란 주제를 가지고 인공지능 발달의 역사 및 최신 연구사례들을 소개하며, 차세대 리더들인 과학영재들이 가져야 할 과학적 비전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비록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이지만 이관장은 중간 중간 흥미로운 동영상을 활용하고, 재미있는 설명을 통해 학생들의 집중력과 이해력을 이끌어내는 특강을 진행하였다.

이번 강연은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 학생 및 학부모가 함께 했고, 특강 후 다양한 질의응답이 오가는 등 뜨거운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학생들에게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기초과학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연구업적을 가진 과학자들과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과학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심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군산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은 코로나19 상황 중에도 전국 및 지역 코로나19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해가며 오프라인 및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생산현장 점검

익산시는 학교급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점검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원예농협·원예농산물생산자 대표가 7~8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납품농가 45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시는 생산현장을 방문해 농산물의 재배상태를 확인하고 수급을 예측하는 한편 과잉생산 잉여 품목에 대한 사전 판로 확보방안을 논의한다.

시는 올해 2월부터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매월 생산농가 재배현장을 점검해 왔다.

특히 매월 생산단계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영농일지 작성여부, 친환경인증기준 적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해 왔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산업단지 일원 방역소독 실시

군산시는 오는 8월까지 산업단지 내 일원 방역소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노후화된 공공시설물과 배수로 등을 점검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단지 방역은 국가산단, 일반산단, 새만금산단, 농공단지 4개 권역으로 편성 운영해 매주 2회 이상 실시하며 7~8월 하절기에는 하수관, 우수관, 하천 주변 등 병해충 발생 취약지역를 집중적으로 방제 방역을 실시, 산단 이면도로와 공원 녹지구역 등 해충방제를 실시한다.

또한 취약지역 인근 기업들이 방역 요청 시에는 방문 소독을 별도로 실시하는 등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쾌적한 산업단지를 조성해 입주 기업들의 여름철 작업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황관선 산업혁신과장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경제 활동 지원과 근로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찾아가는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고병만기자